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총력

임실군, 난방비·방한 물품 집중 지원 등 통합대책 본격 가동

임실군이 동절기 한파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고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올겨울은 평년보다 한파 발생이 잦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군은 독거노인·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약 가구 안부 확인 강화 △난방·방한 물품 및 먹거리 집중 지원 △월동 난방비 지급 등 생활·복지·안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11월 어르신들의 생활 험타인 관내 경로당 349개소에 각 280만 원씩 9억 7,720만원의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했다.

또한, 월동 취약계층 57세대에는 세

대당 20만원씩 총 1,44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했으며, 고령의 취약 가구 90세대에는 동절기 응급 의료 키트(5만 기 취약계층 보호 체계)를 전달했다.

아울러, 개인 지정 기탁 후원금 6백 만원을 활용해 저소득층 30세대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했으며, 임실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 안전 말티맵을 140세대에 지급하는 등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임실군 자원봉사센터와 귀농귀촌센터는 겨울철 먹거리 지원을 위해 김장김치를 230세대에 전달하며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고독사 위험군과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과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

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임실사회보장협의체, 복지이장, 생활지원사 등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촘촘한 돌봄 체계를 운영한다.

현재 군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1,518명, 홀몸 어르신 응급 안전 서비스 1,041명, 고독사 고위험군 도시락·반찬 지원 85명, 장애인 활동 지원 85명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다른 계절보다도 겨울철은 취약계층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계절이다"며 "어느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따뜻하게 찾아가 살피는 복지 행정을 더욱 촘촘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동계 밤 올림픽’ 개최

순창발효관광재단, 6일 특산물 밤 활용 프로그램·공연 등 진행

순창발효관광재단 오는 6일 몽골산 주차장에서 '2025 순창 동계 밤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순창군과 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운숙), 전주대학교 RISE 사업단이 공동 주최하며,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한 주민 참여형 마을 축제다.

‘동계 밤 올림픽’에서는 순창 동계 지역의 특산물인 밤을 활용한 △밤 컬링 △밤 불링 △밤 골리기(밤 골프) △밤 닥트 △동계 밤 부부마블 등 5종 밤 경기와 시상식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경기 외에도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 부스가 운영된다. 대형 군반 체험존, 밤을 활용한 요리체험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축제장에는 피크닉존과 포토존 등



휴게 공간도 조성된다. 겨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캠핑존과 밤 캐리더 포토존도 함께 운영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퓨전국악, 재즈밴드, 트로트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지며, 마술 공연과 밤 투호 등 현장 이벤트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의료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6년 연속 ‘A등급’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사진))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A' 등급을 획득했다. 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지방의료원 35



개, 적십자병원 6개 등 전국 41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30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30점), 합리적 운영(20점) 핵심 운영(20점) 등 4개 분야에 대해 현장점검, 전산자료 분석, 회계서류 검토, 환자·직원 만족도 조사 등을 종합해 점수를 산정한다.

특히 남원의료원(멘토)은 진안군의료원(멘티)과 '멘토-멘티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큰 폭의 개선 성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됐다.

오진규 원장은 "6년 연속 'A' 등급 달성은 양질의 의료 및 포괄적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7137가구 대상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순창군은 관내 농림어가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농림어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를 12월 2일부터 22일까지 21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주관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동시 통계조사로, 순창군에서는 관내 모든 농가, 임가, 어가

등 총 7,137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농림어업의 경영 실태와 구조, 지역 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총 133개 항목이며, 조사대상에 따라 △농가·임가(58개 항목) △해수면어가(30개) △내수면어가(30개) △지역조사(15개 항목)로 구분된다.

조사는 태블릿PC 또는 종이조사표를 활용한 방문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인터넷 조사도 병행 실시된다. 인터넷 조사는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사전에 배부한 '참여번호'를 통해 전용 웹사이트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는 조사관리자와 현장조사원 등 총 56명의 인력이 투입되며, △가구별 경영규모 및 판매금액 △경영형태 △거주형태 △지역기반시설 △마을 공동체 활동 등 세부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를 향후 정책개발의 핵심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은 관내 농림어가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농림어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를 12월 2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개최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가 지난 1일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열고 '임실 균형발전 연구회'와 '임실 사회·복지정책 연구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원안 가결했다.

이번 연구는 '임실군 지역균형발전 방안'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동 공간 조성 방안'을 주제로, 지난 4월부터 약 7개월간 진행됐다.

'임실 균형발전 연구회' (대표의원 이성재)는 임실군의 인구 감소,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임실군을 권역별로 나누어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춘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현황 분석, 설문조사, 전략 검토를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을 발굴하는데 주력했다.

연구 결과로 생활SOC 확충, 정주여건 개선, 스마트 복지 구축 등 핵심사업을 제시하였으며, 중·장기 실행 로드맵을 통해 단계별 실현 가능한 정책 추진 방안을 도출했다.

이성재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임실군의 현실적 문제를 진단하고, 권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실 사회·복지정책 연구회' (대표의원 정일문)는 사회적 약자의 생활 패턴 및 필요 서비스를 분석하고 공동 공간을 조성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주거·돌봄·일자리가 통합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해 3단계 임실형 공동 공간 조성 전략 및 빈집 활용 등을 통해 실현 방안을 도출했다.

정일문 대표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동 공간 조성은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이라고 생각한다"며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져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지리산 캠벨 포도, 대표과일 선발대회 '우수상'

남원시는 지난 11월 27일~29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인월면 이안열 농가가 출품한 지리산 캠벨 포도가 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리산 캠벨 포도는 2023년 최우수상

에 이어 2024·2025년 우수상을 연속으로 수상하며 3년 연속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그 품질을 인정받았으며, 이를 통해 남원 포도의 우수한 품질과 재배 기술이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입증되는 계기가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전북 자원순환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남원시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종합 평가를 실시했으며, 남원시는 분리배출 환경개선,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위해 환경개선 분야 등 8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남원시는 2022~2024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에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자원순환 환경 업무의 최우수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 예산심사 진행

남원시의회 제275회 정례회에서 경제농정위원회(위원장 염봉섭)가 1일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를 진행, 집행부의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민생과 지역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 면밀히 확인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염봉섭 위원장은 춘향비리문대 회처럼 사법비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스포츠 마케팅을 활용을, 이숙자 부위원장은 관원투원 주변 상권조성 교류 협력 사업과 원도심 상인 역량강화 사업 진행 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소태수 위원은 조사로 관련하여 올해 잦은 비로 파종이 늦어져 작업단과 농가 양쪽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원 방안을 마련을 제안, 윤지홍 위원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이 내용물보다 포장에 치중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필요성을, 이기열 위원은 용배수로 사업 등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농업예산 확보를 당부했다.

김한수 위원은 가로수는 보식도 중요하지만 관리 철저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한명숙 위원은 금암공원 조성사업은 아직 시민 만족도가 높지 않으니 정비에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